

AI가 돕는 중소기업,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된다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통합플랫폼 구축·서류 감축 등 혁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정책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시스템은 이제 그만"이라며 "누구나 직관적이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맞춤형 서비스'다. 중소기업이 일일이 사업공

고를 찾아볼 필요 없이 AI가 업종·지역·지원 이력 등을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수출 기업에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정보, 소상공인에게서는 상권 분석, 제조기업에는 기술 공급 파트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분화된 지원도 이뤄진다.

서류 간소화도 획기적이다.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종이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 작성해주는 기능도 도

입된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과 7개 산하 기관에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AI로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서류를 탐지한다.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광고를 일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도 강화한다.

'기업마당'으로 불릴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된다. 중기부와 지자체 등 2,700여 개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21종의 각종 확인서 발급도 통합 처리된다. 로그인 한 번으로 신청까지 가능해 지원사업 검색·신청의 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과 AI가 함께 혁신기

업을 선별한다.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한 스타트업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TIPS 방식이 확대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AI 학습을 거친 K-TOPI 기술평가 시스템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세희 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디지털 기반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청장상' 영예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안전 분야 시상식인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하며 안전경영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바이오진흥원은 안전관리 체계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부문 공로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가운데 최초의 사례로, 지역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상으로, 각 기관과 기업이 추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적을 평가해 수여된다.

바이오진흥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MS) 인증 취득 △안전 전담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정기 비상훈련 실시 △관계기관·입주기업과의 합동 안전점검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인프라 단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운영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안전경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험 관리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역 투자 활성화 맞손

전북 농생명바이오기업 대상 투자로드쇼·업무협약 체결

전북테크노파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전북지역 농식품바이오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테크노파크는 4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북 농식품바이오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식품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물 산업 분야 투자 전문기관으로 전국 단



위의 자금 운용과 투자 연계를 담당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수산물식품기업 발굴 및 육성 △투자·자금 연계 △멘토링·교육 등 창업·투자 활성화와 프로그램 공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열린 '전북 농생명바이오기업 투자로드쇼'에서는

양 기관이 발굴·추천한 전북지역 유망 농식품·바이오기업 8개사가 참가해 자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모델을 선보였다. 참여 기업에는 △(주)엘이엔티(지능형 관수제안 모듈 '팜코디') △메디코스바이오텍(거미실크단백질 생산) △(주)신성이엔스(농축산물 방역 및 수처리장비) △사이클릭스(가축 분뇨처리 관계시스템 기반 탄소배출권 인증 솔루션) △엔텍바이오에스(친환경 메탄저감사료 제조 솔루션) △우리비엔비(돼지 부산물 활용 의약품 개발) △바이오엔(동물용·농자재용 천연소재) △(주)벤티(동물용 제품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 농식품바이오 산업이 공공 중심 지원을 넘어 민간투자 기반의 창업 생태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전북대학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대학교가 청년층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3일 전주상공회의소 회관 중회의실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있는



청년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련

일정과 응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과 함께 실무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11월 11일, '가래떡' 어때요?

농진청, '가래떡데이' 맞아 쌀 소비 촉진 온라인 이벤트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우리 쌀의 가치를 되새기는 '가래떡데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기념해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행사를 열고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며 쌀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의 소중함을 알리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가래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을 먹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고, 행사 공지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참여자 중 40명을 추첨해 국립식량과학원 공식 캐릭터 '식남이' 팬 상품(굿즈)과 우리 품종 쌀 세트가 증정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의 '알림·홍보' 게시판 또는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래떡데이는 1996년 제정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2006년부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숫자 1이 네 개 나란히 선 11월 11일을 '가래떡 모양'에 빗대 만든 기념일로, 젊은 층이 막대와 자를 주고받는 대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11월 10일 내부 직원들과 함께 '묵물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고, 귀리·자색고구마 등을 넣은 이색 가래떡을 나누며 쌀의 다양성과 흥미를 알릴 예정이다.

관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가래떡데이가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우리 농업과 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청소년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1만명 달성

전북농협, 쌀 소비 촉진·건강한 식습관 문화 확산 '앞장'

전북농협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효능을 얻고 있다.

전북농협은 4일 전주 자연초등학교(교장 최상진)에서 재학생 30여 명을 대상,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누적 교육인원 1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과 최상진 교장이 함께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의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인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농가치(農價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

다.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협은 행의 청소년 금융교육과 연계해 △아침밥의 중요성 △아침밥 먹기 운동 참여 방법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구성, 학생들이 쉽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소포장 쌀과 쌀 가공품을 제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쌀밥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식습관 개선에 기여했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 후 실제로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장환 총괄본부장은 "1만 명 달성의 순간을 통해 학생들의 눈빛에서 '아침밥의 소중함'을 깨닫는 변화를 느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